

2020.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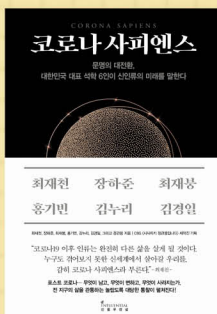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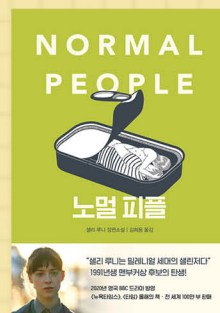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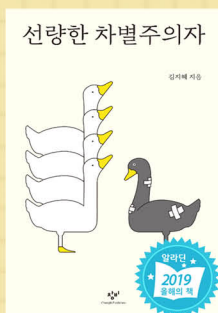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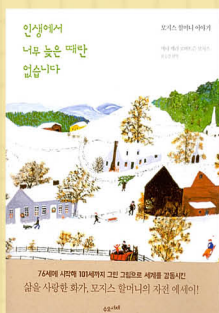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책 읽기 좋은 계절, 이 책 어때요?

2020. 가을 추천도서



에세이

식물의 책

저자·출판사 | 이소영 지음, 책읽는수요일, 2019.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480.4-이55식



책 소개

공원, 가로수, 정원은 물론이고,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뜻하는 '플랜테리어'라는 용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식물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식물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국립수목원·농촌진흥청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해 식물학 그림을 그리며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해온 이소영 식물세밀화가는 식물의 형태, 이름, 자생지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더 오래도록 식물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소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몬스테라, 딸기 등 늘 가까이에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도시식물들에 관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세밀화와 함께 『식물의 책』에 담았다.

저자소개

이소영

식물을 오래도록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 대학원에서 원예학으로 석사를 수료했고, 국립수목원에서 식물학 그림을 그렸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자들과 협업해 식물세밀화를 그린다. <서울신문>에 '이소영의 도시식물 탐색' 칼럼을 연재하며, 네이버 오디오클립 '이소영의 식물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식물 산책』과 『세밀화집, 허브』를 썼다.

출판사 서평

오랫동안 자세히 응시하는 대상에 대해선 애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나 식물처럼 언어나 몸짓으로 인간과 소통하지 않는 생명체에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의 진실이 있다. 세밀화를 그리며 식물을 오래 보아온 이소영 저자가 본인이 그려낸 도시 식물들에 대한 중 한 종 설명한다.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개 그렇듯 그는 다른 이들이 이 존재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아껴주기를 원한다. 그는 한국에서 잡초로 취급되는 서양 민들레가 사실 약용 식물임을 알려주며 식물에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는 건 결국 인간이라 말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투키는 실제로 스투키가 아닌 '실린드리카'라는 명칭을 가진 식물이며, 제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고 설득한다. 몬스테라의 잎모양을 설명하면서는 식물의 잎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옳은 재배 방법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겨울에 꽃을 피우는 복수초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는 말한다. "추운 겨울 복수초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 몫의 행복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아마도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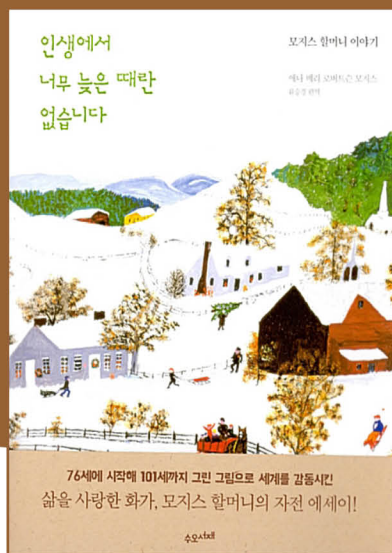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에세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저자·출판사 | 애나메리로버트슨모지스지음, 수오서재, 2017.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650.99-모79인



책 소개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모지스 할머니의 자전 에세이로, 평범한 할머니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되기까지의 스토리와 그림 67점을 따듯하게 담아낸 책이다. 모지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진솔하게 들려준다. 시련이 있을 때는 그저 훌훌 털어버리며 결국 다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삶이 자신에게 준 것들로 최고의 삶을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삶을 통해, 삶의 순간순간을 표현한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며 잘 살아 내려며 위로와 용기를 전한다.



저자소개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가.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12세부터 15년 정도를 가정부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난 후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뉴욕, 이글 브리지에 정착해 열 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다섯 명이 죽고 다섯 명만 살아남았다.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을 놓고 붓을 들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 76세.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듯한 그림들은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출판사 서평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는 모지스 할머니의 자서전과 사랑이 넘치는 그림 67점을 한데 모아 엮은 그녀의 자전 에세이다. 할머니가 직접 써내려간 책 속에 그려진 그녀의 삶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다. 오히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그저 매일에 충실하고 변하는 계절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소박한 일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따듯한 그림과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취적인 자세는 동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생생히 남아 희망이 되고 있다.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인문교양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출판사 | 김지혜 지음, 창비, 2019.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334-김79선



책 소개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이다. 저자인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는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활동가이자, 통계학·사회복지학·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의 열악한 혐오·차별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념해온 연구자다. 현장과 밀착한 인권·혐오문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답게 이번 책에서 쉽고 재미있는 대중적 글쓰기를 선보인다. 인간 심리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연구,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사례, 학생들과 꾸준히 진행해온 토론수업과 전문가들의 학술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쟁을 버무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저자소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에서 교수자, 인권, 차별에 관해 가르치고 연구한다.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출판사 서평

혐오와 차별은 잡초처럼 자란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온 사회에 무성해진다. 사람들은 때로 아주 작은 차별은 무시해도 되고, 심지어 다수에게 유리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이야기하며,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나 시정조치를 역차별이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혐오주의자나 차별주의자가 아니다. 바로 나, 당신, 우리일 수 있다. 평범한 우리 모두가 '선량한 차별주의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출간되었다.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해내는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조직해가자고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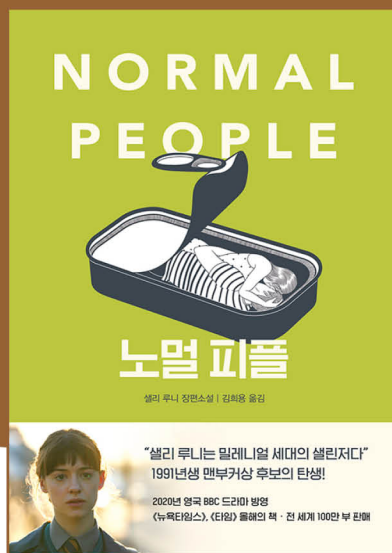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소설

노멀 피플

저자·출판사 | 샐리 루니 지음, 아르테, 2020.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843.6-루219노



책 소개

청소년 시기에 만난 두 남녀가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구원하며 어른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 세계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브리티시북어워드를 비롯해 《타임》, 《파리리뷰》 등이 ‘올해의 책’에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BBC에서 제작한 드라마도 2020년 4월 방영되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자소개

샐리 루니

27세에 세계적 문학상인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고 ‘스냅챗 세대의 샐린저’, ‘프레카리아트의 제인 오스틴’, ‘더블린의 프랑수아즈 사강’이라고 극찬받는 아일랜드의 신예 소설가이다. 1991년 아일랜드 메이요에서 태어나 트리니티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2017년 『친구들과의 대화』로 데뷔해 평단의 찬사와 독자의 뜨거운 사랑을 동시에 받았으며, 『노멀 피플』은 두 번째 장편소설로,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으며 전 세계에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출판사 서평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다. 어떤 사랑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랑은 한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선량함을 끌어내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꿈과 바람을 드러내며 서로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린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평생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큰 행운일 것이다. 코넬과 메리안의 사랑은 그런 모습이었다. 본래 코넬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법학과에 진학해 변호사가 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틈만 나면 소설을 읽는다는 것도, 그 속에 폭 빠져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메리안은 코넬이 경제적 불안 때문에 숨겨왔던 꿈과 재능을 알아보고 지지했으며 그의 문학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한편 메리안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 오랫동안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망가진 인간이라고 여겨왔다. 코넬은 아무도 몰랐던 메리안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발굴해주고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메리안과 코넬은 처음부터 운명처럼 사랑했지만 어리고 서툴렀던 시절,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의 시선이나 경제적 문제 같은 시시한 것에 얽매며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둘은 신비한 인력의 작용이라도 받듯 내내 곁을 맴돌며 서로를 끌어당긴다. 그 과정은 이 시대 누구든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랑인 동시에 이 시대에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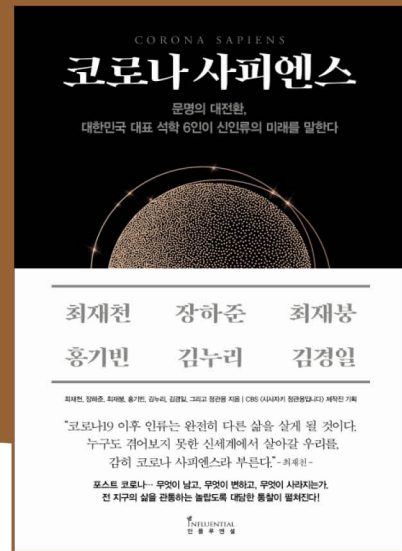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인문교양

코로나 사피엔스

저자·출판사 | 최재천 등 7명 지음, 인플루엔셜, 2020.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331.5414-최72코



책 소개

인류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생태와 인간, 경제의 재편, 문명의 전환, 새로운 체제, 행복의 척도 등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어떻게 바뀌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6인의 석학이 제시하는 인류의 미래와 성찰, 대안의 메시지는 신인류의 대안적 삶을 모색하게 한다.

저자소개

최재천 등 7명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동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국생태학회장, 국립생태원 초대원장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다윈 지능》, 《통섭의 식탁》, 《최재천의 인간과 동물》, 《과학자의 서재》 등이 있다.

출판사 서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류가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과거의 언어,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위기를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는 자성적 성찰이 대두하는 가운데 각 분야 대표 지성들이 대담한 인사이트를 내놓았다. 최재천(생태와 인간), 장하준(경제의 재편), 최재붕(문명의 전환), 홍기빈(새로운 체제), 김누리(세계관의 전복), 김경일(행복의 척도)이 그들이 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에서 어떤 점을 눈여겨보아야 하는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성장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위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이들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 명명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전히 다른 체제 아래 살아야 할 신인류에 대한 폭넓은 통찰을 제시한다.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인문교양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저자·출판사 | 구본권 지음, 어크로스, 2020.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331.541-구45로



책 소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탁월한 책’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필독서로 자리 잡은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의 개정증보판. 초판 출간 이후 5년간의 변화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예술과 판결(법과 정치)에 관한 2개의 장을 추가했다. 갈수록 똑똑하고 편리해지는 도구와 지혜롭게 관계 맺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영원히 인간의 일로 남을 문제들을 고민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서다.

저자소개

구본권

우리 시대 대표적인 디지털 인문학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박사학위(언론학)를 받았으며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1990년부터 <한겨레> 기자로 일하며 사람과 디지털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디지털 기술의 빛과 그늘을 함께 보도해온 IT 전문 저널리스트로, 기술과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방안을 궁리하며 글 쓰고 강의한다.

출판사 서평

정치적 판단과 예술적 창조성은 마지막까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기술의 발달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듯하다.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인 ‘넥스트 렘브란트’는 렘브란트의 화풍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인공지능 화가인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는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앤디 워홀의 작품보다 6배나 높은 가격인 43만 2000달러에 낙찰되었다. 기계가 그린 그림이 사람의 예술작품처럼 소장자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빠르게 늘면서 편견이나 선입관으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 대신 실제 재판에 투입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재 이유를 위협받는 중대한 변화다.

저자가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정한 판결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다. 여기에는 예술은 결과물의 아름다움이 아닌 창작자의 의도와 가치를 표현하는 일이며, 기계가 아무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해도 그 책임과 권한은 인간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효율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일이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예술과 정치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약점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기계와 구별되는 최후의 요소임을 인지하고, 기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 더욱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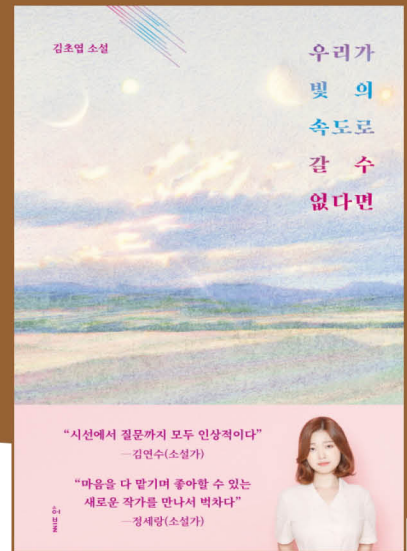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저자·출판사 | 김초엽 지음, 허블, 2019.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813.7-김815우



책 소개

저자가 그려낸 아름답지만 순진하지 않고, 어디에도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들은 저마다 불가능성을 꺼안고 고군분투하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저자는 정답이 없는 불가능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를 통해 타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 아니겠느냐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란 없는 거냐고, 근사한 세계를 그려내는 상상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소개

김초엽

1993년생. 포스텍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생화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7년 「관내분실」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대상과 가작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출판사 서평

김초엽의 소설은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면서도 소설가 김연수가 추천의 글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의 세계를 선불리 판단내리지 않고 투명하게 담아낸다. 그 세계는 아름답지만 순진하지 않고 어디에도 없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다.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는 뛰어난 과학자 릴리 다우드나로 인해 '완벽한' 유전자의 선택이 가능해진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완벽함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 한편, 소설에는 장애도, 차별도, 혐오도 없는 그리고 사랑도 없는 행성인 '마을'이 함께 그려진다. 이 아름답고도 평화로운 '마을'은 일종의 '유토피아'를 상상케 한다. 성년이 되면 순례를 떠나는 이들 중 일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문을 빼면 말이다.

"마을이 유토피아라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이 물음은 장애를 비장애로, 디스토피아를 유토피아로,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간편하게 뒤집는 대신 오히려 그 이분법적인 항들의 관계를 사유하게 한다"(작품해설 중)라고 문학평론가 인아영은 말한다. 무엇이 우리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를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는지. 이 소설은 이야기를 통해 질문한다.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

인문교양

나이 든 나와 살아가는 법

저자·출판사 | 사토 신이치 지음, 지금이책, 2020.
소 장 정 보 | 일반자료실 199.1-사835나



책 소개

중장년기부터 황혼기까지에 있을 대표적인 '생애 사건Life Event'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이대별로 살펴보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나이 든 나와 살아가는 법』. 일본의 정통한 노년심리학자의 글이지만 어렵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다. 40여 년간의 집요한 연구 성과와 수많은 임상 사례, 그리고 정작 저자 자신도 노년기를 맞이할 한 사람으로서 깨달은 나이 듦에 관한 통찰이 오롯이 담겨 있다. 생애 사건별로 나이 듦을 맞이하는 단단한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 등을 소개하고, 저자의 전문가적 조언을 덧붙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나이 듦의 의미와 노년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마음이 풍요로운 인생 후반의 삶을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사토 신이치

1956년 도쿄 출생.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인간과학연구과 노년행동학 및 임상사생학 교수. 와세다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후과정을 마치고 도쿄 노인종합연구소 연구원,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통계학연구소 시니어 연구원, 메이지학원대학 심리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일본 노년행동과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일본 응용노년학회 이사, 일본 치매케어학회 대의원, 일본 노년정신의학회 편집원, 일본 노년사회과학회 평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누구나 살면서 '생애 사건'을 경험한다. 생애 사건이라 하면 특정 사건을 전후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정적 계기를 말한다. 가령 진학, 결혼, 출산, 승진 등은 대부분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생애 사건인 반면,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실직, 사별 등은 '부정적' 생애 사건에 속한다. 생애 사건은 대부분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면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일어나는 생애 사건은 대개 은퇴나 퇴직에 따른 사회와의 단절 및 경제적 불안, 부모나 배우자의 죽음, 질병과 노화 등 부정적인 사건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생애 사건에 잘 못 대처하면 인생 후반이 괴롭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나이 든 나와 살아가는 법》은 이처럼 생애 사건별로 나이 듦을 맞이하는 단단한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 등을 소개하고, 저자의 전문가적 조언을 덧붙인다.



당신과 함께 읽고 싶은, 가을